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IN EMPOWERING UNMARRIED CHRISTIAN YOUNG ADULTS: A QUALITATIVE POSTCOLONIAL AND INTERDEPENDENT APPROACH

비혼 기독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회 돌봄 실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Eunsung Jeon

May 2022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Eunsung Jeon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HyeRan Kim-Cragg

Dean of the Faculty
Andrew Dreitcer

May 2022

ABSTRACT

THE PRACTICE OF PASTORAL CARE IN EMPOWERING UNMARRIED CHRISTIAN YOUNG ADULTS: A QUALITATIVE POSTCOLONIAL AND INTERDEPENDENT APPROACH

by

Eunsung Jeon

Currently, the average marriage age in Korean society is rising, and more people live unmarried. In these times, members of the Church critically reflect on the view of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 Church and call for new changes as a result. The Church of Korea offer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reflecting on the growing reality of unmarried young adults and the conflicts and oppressive situations arising from existing perceptions of traditional marriage.

This project was conducted in-depth through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on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above who live their faith in the Y Church. There were four categories of their experience: lack of respect, standardization, oppression, and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ey were interpreted as post-colonial and interdependent, and emphasized why interdependent pastoral care was needed.

I suggested a practical alternative through interdependent Bible reading and sermons for the church to interdependently care for unmarried young people over 30.

KEYWORDS: Korean Church, Unmarried Young Adults, Interdependence, Post-colonial, Small Group

국문 초록

비혼 기독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회 돌봄 실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

by

Eunsung Jeon

현재 한국 사회의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비혼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 한국 교회는 비혼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과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기존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억압적 상황을 반성하면서, 상호의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Y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통해서 심층면담하였다. 그들이 경험하는 바를 네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존중 결여, 규범화, 억압, 상호의존으로 도출된 이 결과를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성으로 해석하였으며, 상호의존적인 목회 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였다.

나는 교회가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을 상호의존적으로 돌봄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상호의존적인 성서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한국 교회, 비혼 청년, 상호의존, 포스트 식민주의, 소모임

SUMMARY

In the 2020s, Korean society is seeing an increase in unmarried young adults and a growing number of single-member families. In 1990, the average age of marriage in Korea was 27.79 for men and 24.79 for women, but in 2020 the average age of marriage in Korean society was 33.23 years for men and 30.78 for women, an increase by more than five years. In businesses and broadcasts,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products and programs aimed at unmarried young adults. In this reality, I wondered how the Korean Church was preparing pastoral arrangements for a growing number of unmarried young adults.

While I was concerned about these issues, I had the opportunity to take classes on Postcolonialism and Interdependence from Dr. Namsoon Kang and Dr. HyeRan Kim-Cragg as part of my doctoral program in pastoral studies at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taking the courses, I became aware of many colonial perspectives within the church. Then, what are the experiences that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have in the church?

I selected eight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older from the Y Church in Yeongdeungpo, Seoul, for an in-depth interview. They were qualitatively studied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find out what they had experienced in the Church. In the study, I listened to deepen the in-depth knowledge, using Colaizzi's methods to derive meaningful topics. Four categories and nine subject groups were able to be drawn into twenty-seven topics. They were in the categories of lack of respect, standardization, oppression, and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or older have different values, ideas, and plans for marriage, but they find that these ideas are not respected. I found that young people with these

diverse ideas are being standardized as objects that should be married quickly in the church. Unmarried young people were neglected for their diversity and were standardized as subjects who had to get married quickly. This was related to the normalization that it was normal to get married and it was abnormal to not to get married.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church standardizes unmarried young people in their 30s and older as normal and abnormal due to the prevailing post-colonial view that emphasizes the Christian tradition of family. These normative young adults were being oppressed from a colonial point of view. Through marginalization, they discovered that they were marginalized, unable to be the main target of pastoral care in the church, and un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church.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older showed a sense of helplessness when people asked when they would get married despite refusing to respond to people's persistent questions, and even they began to comply with it. Moreover, they were neglected, as they were not married and experiencing violence when people called them informal. They were subjected to violence of being talked down to, and they were denigrated by people for being unmarried. In addition,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he church's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Postcolonialism and interdependence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in order to interpret the results of these issue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nd propose an alternative perspective with interdependence. The theory of postcolonialism is to discover internalized colonial thoughts and interdependence refers to the way in which everyone is related to another. With these theories, I examined experiences of oppression and standardization experienced by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older in the church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nd explored alternative approaches to interdependence.

As an alternative to interdependence, I suggested that unmarried young adults read the Bible in an interdependent way. I suggested it in the hope that the unmarried young adults would experience healing and recovery as they overcome their standardized thoughts and prejudices by reading the bible from an interdependent perspective. Moreover, I offered an opportunity for healing and recovery by writing a sermon manuscript based on the Bible readings from an interdependent perspective and preaching it during the worship service.

My hope is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ministers who serve unmarried young adults in their 30s and older, and for congregations not to standardize young adults into marriage, but rather to encourage them toward interdependence.

국문요약

2020 년대 한국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청년들이 증가하고 1 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0 년 한국에서 결혼을 처음하게되는 평균연령은 남자 27.79 세, 여성 24.79 세였지만, 2020 년의 한국사회의 결혼을 처음하게되는 평균연령은 남자 33.23 세, 여성 30.78 세로 5 세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나는 비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방송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방송프로그램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늘어나는 비혼 청년들에 대한 목회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클레어몬트의 목회학 박사과정 중 강남순과 김혜란의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성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안에는 식민주의적 관점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30 대 이상의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일까.

나는 서울 영등포의 Y 교회의 30 대 이상 비혼 청년 8 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그들과 심층 면담한 내용을 콜라이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 듣고 심화하여 의미 있는 주제들로 도출하였다. 4 가지 범주와 9 개의 주제 군

27 개의 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특별히 그들을 다양성, 규범화, 억압, 상호의존이라는 범주로 도출하게 되었다.

30 대이상의 비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과 계획이 모두가 다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을 교회에서는 빨리 결혼해야하는 대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혼 청년들은 자신들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빨리 결혼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규범화 되었다. 이는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규범화에서 연계된 것이었다. 특히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통의 가정을 중시하는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이 팽배하여 30 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규범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규범화된 청년들은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억압을 받고있었다. 주변화를 통해서 이들은 교회에서 주된 목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주변화 되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30 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거절의사를 보였음에도 지속되는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는 계속된 물음에 무력화되어 순응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력감을 보았으며,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대하고 반말로 호칭하는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에도 참여하기 힘들며 소통의 통로가 부재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들의 도출을 포스트 식민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상호의존성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하기 위해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성을 설명하였다. 포스트 식민주의는 식민주의적 사고와 생각들이 내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상호의존성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으로 나는 30 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억압과 규범화의 경험을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였고, 대안을 상호의존적인 방법으로 찾아보았다.

상호의존적인 대안으로 비혼 청년들의 상호의존적인 성서읽기를 제시하였다. 성서읽기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범화를 통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선입견들이 먼저 치유와 회복될 수 있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성서 읽기를 근거로 설교문을 작성하여 예배 때 사용하여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가 30 대이상 비혼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교회의 청년 세대를 결혼이라는 것으로 규정짓던 성도들에게도 상호의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2020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30년전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다.[1] 나는 서울의 Y교회 청년담당 목회자로서 현재 교회의 목회가 결혼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다.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청년부와 장년부의 중간에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목회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2]

이런 와중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성의 관점은 나의 프로젝트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들을 중심으로 30대이상 비혼 크리스천 청년들의 교회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하였다.

A. 문제제기와 논의

나는 군대에서 군종목사로 8년간 사역하였다. 군종목사 재직시절 주된 사역의 대상자들은 군복무중인 청년이다.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초중반이었다.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목회를 할 때 청년이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해본적이 없었다. 내가 사역하는 청년들은 군에 입대한 청년이고 20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시도별평균초혼연령," 통계청, last modified March 3, 2021,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시기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초혼연령	27.79(남) / 24.78(여)	29.28 / 26.49	31.84 / 28.91	33.23 / 30.78

[2] 비혼이라는 용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미혼'이라는 용어에 비해 중립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혼을 '주체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았다.

이후 군종목사를 전역한 뒤 Y교회의 청년부담당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회에 나와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담당하고 난 후 처음 놀라게 된 것은 청년부 내에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사실이었다. 군교회에서 군인이라는 특별한 계층만을 사역하는 곳에서 사역했던 나로써는 사회의 교회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의 상황이 새로운 경험으로 와 닿았다. 특히 청년부 안에서도 다양함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너무나 다른 연령대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청년부터, 40대가 훌쩍 넘어버린 청년까지 청년부에 함께 있었다. 물리적인 나이로보거나 사회적인 위치와 경험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상이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청년부에 속해 있었다. 청년부에서 20살의 청년과 40대의 청년을 동시에 목회하다 보니, 이들이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대의 청년과 40대의 청년들이 같은 청년부에 함께 있지만 과연 같은 청년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왜 이들을 청년부라는 부서에 함께 편성하였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청년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30대중반 이후의 청년들은 청년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은 장년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왜 청년예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청년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청년부에서 졸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장년부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부서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봉사를 하는 청년들만 그 봉사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고, 봉사를 하지 않는 졸업한 청년들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없었다. 또한 과거에 청년부에 소속되었던 청년들도 현재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다. 그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난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목회적 환경 속에서 나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그리고 왜 교회는 이들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청년부에 나오지 않지만 청년으로 불리는 이들이 청년부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보았다.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일까? 주변의 큰 교회를 찾아보았더니, 일부 교회에서는 20대와 30대의 청년부를 나눠서 사역하기도 하였다. 이는 마치 어린이교회에서도 인원이 많아지면 더 세분화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청년으로 한정하여 목회한다는 것이다.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청년으로 소속시켜 놓았을까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40대의 결혼하지 않은 성도가 청년부에 소속된 것과 반대로 20대이나 결혼한 부부들은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았다. 이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부에 있을 수 없었고 장년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청년부에 소속되는 것이 나이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되었다. 장년부에 소속된 20대 기혼 부부는 각자의 신도회에 들어가며 어린 나이에도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30대이상이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비혼 청년들은 여전히 청년이라는 호칭으로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어야 했다. 왜 교회는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과 장년을 나누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30대이상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몇 년 사이에 결혼의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3.23세, 여성 30.78세로 결혼 평균나이가 30대가 되었다.[3] 예전 같았으면, 30대의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또한 비혼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비혼 청년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또한 30대 이상의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클레어몬트의 학교 수업을 듣다가 강남순의 수업과 김혜란의 수업을 통해서 고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별히 비혼 청년들을 왜 청년으로 말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강남순의 포스트 식민주의 수업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강남순은 "기독교의 성서가 표상하고 있는 가족은 창세기에 최초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양성의 핵가족형태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의 의미로 규정이 된다"[4]고 말한다. "특히 구약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창세기에서 열왕기서에 걸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위계주의적 가부장주의적 가족이다."[5] 교회에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의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은 이로 인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김혜란의 상호의존성 수업을 들었을 때, 고민은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다. 김혜란은

---

[3] "시도별평균초혼연령," 통계청, last modified March 17, 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99.

[5] 강남순, 199.

"어른이 되지 못한 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교회가 아이와 어른의 예배를 분리하게 되었음"[6]을 말했다. 어른과 아이로 나누는 관점,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누는 관점들이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올까? 지금의 청년부로 나뉘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일까? 나는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의 비혼 청년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생각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 혼자 생각해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적 요구를 받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경험하는 것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B. 정당성

결혼 평균연령이 30대가 넘어가고 있으며,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7] 교회는 30대이상의 비혼 청년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목회 대안을 필요로 할 것이다. 30대이상의 비혼 청년들이 목회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 따라서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회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30대이상의 비혼

---

[6]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 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 신학*, trans.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117.

[7] 통계청, "시도별평균초혼연령." And "시도별 1인가구," 통계청, last modified June 23, 2020,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청년들이 교회에서 받는 인식이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질적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교회에서 비혼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떠한 관점을 가진 인식이며, 이를 포스트 식민주의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후 대안으로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목회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상호의존적인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김혜란의 상호의존성의 이론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호의존적인 모임으로 비혼자들의 눈으로 보는 성서읽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C. 청중

이 프로젝트가 의도한 독자와 청중은 일차적으로 목회자이다. 사역을 담당해야할 목회자들이 비혼 청년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돌볼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 지를 알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역자들이 구체적인 방법들로 비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개발할 것을 기대한다. 두번째 의도한 청중은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이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시선과 목회적 돌봄을 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앙을 성장해갈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혼 장년들이 청중이다. 기혼 장년들이 비혼 청년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피며 자신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기혼 장년과 비혼 청년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D. 논지에 대한 토론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로 상호의존성과 포스트 식민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삼으려 한다. 포스트 식민주의는 그동안 주류사회의 식민주의적 사고로 세계를 인식하는 틀을

비판한다. 식민주의안에서는 주류에 의해 비주류가 지속적인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포스트 식민주의는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이론이다.[8] 포스트 식민주의의 관점은 식민을 하는 나라와 식민을 당하는 나라들 안에서 식민의 접촉의 시작에서 현재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식민 과정이 모든 면모를 조사한다.[9] 이러한 이론으로 서구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경건함과 결혼한 가정을 중심적이고 온전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생겨났음을 지적하고 있다.[10]

김혜란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고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1] 이 의존은 성서에서 정의와 연결되는데, 성서의 정의는 사람됨의 공동체와 관계성을 말하고 있으며,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웰빙을 정의로 말하고 있다.[12] 구체적으로 웰빙은 "각자가 온전하게 되며, 한 사람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이를 살아내는,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 공동체의 웰빙은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 가로 측정되는데,[14] 이는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억압받고, 취약한 사람들, 타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15] 그렇기에 상호의존성으로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목회하는 것은 청년들과 교회, 그리고 기혼자들과 비혼자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알려주며, 소외되고 있는 그룹과

---

[8]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2), 55.

[9] Russell, 55.

[10]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141.

[11] Kim-Cragg, 64.

[12] Kim-Cragg, 65.

[13] Kim-Cragg, 66.

[14] Kim-Cragg.

[15] Kim-Cragg, 67.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모임은 몇몇의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라도 소그룹모임에서 환대받으며 존중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호의존성은 타자를 희생시켜 소수의 몇몇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6] 누구라도 환대받으며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로 비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비혼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에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차이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호의존성의 실천은 서로의 필요와 상호성에 대한 열망을 긍정하면서도 불평등과 노력 없이 얻은 특권을 포함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7]

이 프로젝트는 교회 안의 비혼 청년들이 어떤 교회 경험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려한다. 이를 위해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서 비혼 청년들의 경험이야기를 들으려한다. 이들의 경험을 포스트 식민주의를 근거로 경험들을 해석하려한다. 또한 이들의 경험을 해석한 이후 상호의존성의 이론을 근거로 목회 돌봄의 대안을 찾아보려한다.

E. 관련된 문헌자료의 검토

30대이상 기독교 미혼청년들을 위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30대이상 혼 청년들의 현상을 일반적인 범주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두번째는 비혼 년들 중 기독교인들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범주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포함되는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연구가 있다.

---

[16]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71.
[17] Kim-Cragg.

30대 여성의 자발적 비혼 선택에 대한 연구가 있다.[18] 이 연구에서는 30대 여성들의 변하고 있는 결혼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비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0대 비혼 청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는 청년들의 원인과 이유를 참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여성의 삶의 경험을 살핀 연구가 있다.[19] 이 연구에서는 비혼을 선택한 삶의 만족감과 주변 가족들과 관계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토대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가족들과 관계에서 오는 감정들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30대 비혼 여성들 중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다.[20] 이는 미혼 청년 중 특별히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비혼을 다루고 있다.

비혼 청년들의 심리상태를 다루는 연구도 있다.[21] 30대 비혼 청년들의 심리적 요소에 집중해서 연구하였는데, 비혼 청년들의 심리에는 불안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불안의 심리를 나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세대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누며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30대 비혼 청년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 내부의 비혼 경험에 대한 연구도 있다. 기독교의 40대이상 비혼 청년들의

---

[18] 강유진,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PsyM thesis,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19] 한혜림,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PhD diss.,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9).

[20] 노미선,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MA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21] 이민경, "청년들의 마음체제에 대한 질적 분석: 30대 싱글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vol. 1, no. 109 (July 2020): 97-135.

경험을 다룬 연구로 그들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22]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비혼 현상 실태와 가족연구에 대한 연구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각자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혼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영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연구하고 있다. 위의 연구는 기독교 안에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와 사회 문화적 이유, 그리고 영성적 이유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회내 30대이상 비혼 청년 중 자발적으로 비혼을 결심하는 청년들의 이유와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데 도움을 주었다.

30대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예배사역에 대한 연구도 있다.[23] 강민석은 30대이상의 싱글 청년들의 예배 사역을 Y교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30대 이상의 청년들의 문화와 예배를 접목하여 예배를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다만 효과적인 예배를 연구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소그룹과 나눔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30대이상의 비혼 청년들의 신앙적 요구와 문화적 배경연구는 비혼 청년들의 목회 돌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기혼자들이 30대이상의 비혼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를 한 연구도 있다.[24] 류경희와 왕석순은 기혼자들이 결혼으로 인해 갖는 인식에는 두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안정에 관한 관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상실의 관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 속에서

---

[22] 김용우, "40대 기독교 남녀의 비혼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23] 강민석, "3040세대 싱글 청년들을 위한 예배 사역에 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9).

[24] 류경희 and 왕석순, "기혼자의 '결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싱글'과 대비한 '결혼' 인식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3, no. 2 (June 2011): 89-107.

기혼자들은 비혼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게 되었다. 기혼자들은 비혼자들이 자유와 자신의 삶 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회안에서도 기혼신자들이 비혼 신자들을 바라보는 입장을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다.

30대 비혼 여성목회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쓴 논의도 있다.[25] 이 논의에는 비혼이 특별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혼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를 근거로 비혼주의를 택하거나 비혼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비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연구도 있다.[26] 비혼을 택한 여성들의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신학으로 머무름의 목회로 결론을 이끌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내의 비혼 청년들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교회내의 비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다.

F.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기혼과 미혼, 비혼

결혼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할 때 결혼한 사람의 상태를 기혼이라고 말한다.[27]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독신, 미혼, 비혼, 싱글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독신이라는 표현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28] 미혼은 아직

---

[25] 심경미, “하나님의 형상 비혼지체들,” *새가정* vol. 65 (July 2018): 19-23.

[26] 권미주, "비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공동체의 머무름의 목회신학 연구," (DMin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2019).

[27] “기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2492&searchKeywordTo=3.

[28] “독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결혼하지 않은 상태나 사람을 지칭한다.[29] 이 단어들은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미혼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비혼이라는 용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미혼'이라는 용어에 비해 중립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혼을 '주체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았다.[30] 교회 공동체내에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비혼이라고 사용하겠다.[31]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결혼을 이루지 못한 미성숙의 의미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혼이라고 지칭하였다.

2)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포스트 식민주의란 말은 식민화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거쳐, 독립을 성취하고, 현재의 신식민주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지어낸 용어이다.[32] 포스트 식민주의를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스트 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시대 이후의 시간적 기간이나 권력의 정치적 이전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의 인식론적 틀을 분석하는 책략으로 사용한다.[33] 포스트 식민주의는 인식론적 의미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가족중심적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9] "미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29350&searchKeywordTo=3.

[30] 권미주, "비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공동체의 머무름의 목회신학 연구," 35.

[31] 한혜림,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14.

[32]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7.

[33] Russell, 56.

3) 상호의존성

김혜란은 상호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간 존재는 그 누구도 홀로 태어날 수 없으며, 사람이 배우고 자라기 시작할 때 사람은 타자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자들을 의존함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상호의존성이라고 한다.[34] 교회 안에 기혼자와 비혼자로 구분 지어져 있는 구조와 상황속에서 서로 한계를 인식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론으로 도움이 되었다. 또한 김혜란의 '너머'의 시선으로 기혼자와 비혼자를 넘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대안이 되었다. [35]

G.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본 연구는 30대이상의 기독교 비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이었고, 그들의 교육수준과 경제력수준에 따라서 구분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거나 교육과 경제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에서 밝히 못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다른 특수한 상황의 비혼 청년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현재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연구하였고,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목회 돌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혼자들의 눈으로 보는 성서읽기' 모임을 진행하며, 상호의존적인 관점을 가졌다. 이후 성서읽기를 통해서 나온 관점을 설교 때 활용하여 상호의존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았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절차 과정과 좀 더

---

[34]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65.
[35] Kim-Cragg, 29.

구체화되고 다양한 연령, 상황의 성도들과 상호의존적인 대안들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H.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많고, 교회의 청년부를 다루는 연구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상황을 포스트 식민주의로 해석하고 상호의존성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와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Chapter II

질적 연구 방법과 논의(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Discussion)

A. 연구방법 (Research Method)

나는 30대 비혼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특별히 내가 사역하고 있는 Y교회 안에 나타난 30대 비혼청년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목회 돌봄의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Y교회 안에서 30대이상 비혼 청년 중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피고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으로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36] 질적 연구에서는 탐구 대상의 '질(質, quality)'에 대한 연구이며, 이는 수치화된 자료로 나오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 통계화,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37]

30대 이상 비혼청년들의 경험하는 바를 연구하는 본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관한 의미를 찾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선입견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연구 방법이다.[38] 인간은 삶 속에서 다

---

[36]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16.

[37]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27.

[38] 유기웅 et al., 139.

양한 대상들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식들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직관적 현상학이다.[39] 또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발생시킨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방법으로 이를 해석학적 현상학이다.[40] 현상학적 연구를 할 때 현상학적 환원이 필요하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선입견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41] 이는 '에포케', '괄호치기'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에포케는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뜻의 그리스어이며, 괄호치기는 판단 중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안에 넣는다는 것을 뜻한다.[42]

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30대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의미를 해석할 때 현상학적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별히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는데, 심층 면담이란 연구 대상자의 삶과 경험과 상황을 연구 대상자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한다[43]. 이를 통하여 교회 내에 있는 30대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그들이 느끼는 것들과 인식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지를 살피며 교회에 바라는 것들과 감정들에 주목

---

[3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3.
[4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90.
[41] 김영천, 94.
[42] 김영천, 95.
[43]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23.

하여 관찰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성의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목회 돌봄의 대안을 세웠다.

B. 연구 대상 (Research Participant)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Y교회의 청년부에서 활동중인 30대 비혼 청년들과 청년부에 속해 있지 않은 비혼 청년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할 때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과 성인이 되어서 오게 된 사람을 구분하였다. 어린시절부터 Y교회에 다닌 사람과 성인이 되어 Y교회에 온 사람이 받는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신앙연수	Y교회연수	청년부활동	성별
연구참여자 A	30	20	4	하고있음	여
연구참여자 B	44	44	44	하지않음	여
연구참여자 C	46	46	20	하지않음	여
연구참여자 D	37	37	37	하지않음	여
연구참여자 E	34	34	14	하고있음	남
연구참여자 F	32	32	32	하고있음	남
연구참여자 G	33	33	6	하고있음	남
연구참여자 H	32	16	4	하고있음	여

나는 연구참여자들과 60분 이내로 면담을 하였겠다. 직접 면담을 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 및 필사로 자료를 남기며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

하고 연구에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면담필사내용, 녹취 파일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파일은 개인 노트북에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동안만 보관하겠다. 연구참여자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 파기하였다.

한번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나 캐내기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 면담을 더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필사 한 내용과 분석한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하는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면담이 힘든 경우 줌(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참여동의서는 미리 이메일로 송부하여 동의를 받았다. 온라인 면담을 진행할 경우 줌 프로그램에 있는 녹화기능을 사용하며 이때 필사를 같이 진행하였다. 온라인 면담시 저장한 내용은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동안에만 보관되며, 연구완료후에는 파기하였다.

C. 연구 절차 (Research Procedure)

연구자들을 대상으로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표 2〉 심층 면담 가이드

구분	질문 내용
1	Y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2	본인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3	Y교회에서 본인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성도, 청년, 집사 등)
4	Y교회에서 다른 세대로부터 어떤 시선과 관심의 경험을 받고 있는지요?
5	다른 세대의 시선과 경험 중 결혼과 관련된 시선과 경험을 받고 계신지요?

6	다른 세대로부터 오는 경험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7	기혼자들과 같은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경험이 가능했고, 또 왜 불가능했습니까?
8	기혼자들과 모임하는 것과 비혼자들만의 모임은 어떠한 경험들을 주었습니까?
9	기혼자들과의 모임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0	비혼자들끼리의 모임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1	Y교회에서 30대이상 비혼청년에게 목회적 관심이 얼마나 있다고 느끼십니까?
12	앞으로 Y교회에서 30대이상 비혼청년들을 위한 어떤 목회적 사역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연구에서 콜라이지(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콜라이지의 분석절차는 5단계로 진행된다.[44]

1. 면담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기
2. 면담한 내용 중에서 '의미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기
3. 의미있는 진술들 중에서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
4.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하기
5. 면담자들의 경험과 구조화된 기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선행된 판단의 전제들을 멈춰야 했다. 나는 그들의 경험을 더욱 객관적으로 듣기위해서 판단중지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인 비혼 청년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에서 판단 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판단 중지 내용

	판단 중지 내용
1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결혼을 원할 것이다.
2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결혼해야한다고 강요받았을 것이다.

[4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107.

3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비혼청년들끼리의 모임을 선호할 것이다.
4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5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Result and Interpretation)

나는 연구 분석을 위해서 콜라이지(Colaizzi)분석과정을 사용하였다. 연구분석결과를 계속 듣고 해석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며 비혼청년들의 의미있는 대화를 선별하여 24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것을 9개의 주제군으로 분리하였고,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첫번째 범주에는 '존중결여'로 2개의 주제군과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두번째 범주에서는 '규범화'로 2개의 주제군과 5개의 주제로 도출했다. 세번째 범주에서는 '억압'으로 3개의 주제군과 8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 네번째 범주에서는 '소통 통로 부재'로 2개의 주제군과 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아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 군 및 주제

범주	주제 군	주제
1. 존중결여	1) 기혼희망	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②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고 언젠가는 할 것인데, 당장 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려해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결혼시기도 늦춰지고 있으니까요. ③ 항상 있었어요. 26살에 해야지, 28살에 해야지, 서른에 해야지 하다가 32살에 해야지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은 긍정적인데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삶이 너무 재밌고 바쁘니까요.
	2) 비혼유지	① 결혼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은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찔림이 계속 있어요. ②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③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집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있고, 아버지도 은퇴를 바라보셔서 아직은 생각하기 힘드네요.
2. 규범화	1) 결혼이 정상	① '너는 왜 이제까지 결혼을 안하냐'는 안타까운 시선들을 느껴요. 친한 권사님들께서는 볼때마다 인사차 결혼안하냐고 물어보세요. ② '빨리 청년부 졸업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장년부와서 일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③ '빨리 결혼해서 장년에 올라오라'고 해요. 어린시절부터 교회에서 다니다보니 지나친 관심이 많아요
	2) 비혼은 비정상	① 결혼을 안 할거라고 하면 그러다가는 후회한다고 해요. 한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하라고 하세요. ② 결혼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줄 알고 불쌍하게봐요.
3. 억압	1) 주변화	①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일단 가장 어린 부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② 청년부를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소속이 애매해서 교회활동이 확 줄었어요.
	2) 무력감	① 볼 때 마다 결혼 언제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이야기를 물어볼 때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하게 되요. ② 은퇴장로님들이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고 결혼안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흘려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③ 금요예배때 공개적으로 OOO자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3) 폭력	① 최근에 집사직분받기전까지는 계속 OO청년이라고 불렸어요. ② OO야, 이런식으로 이름으로 불리거나 애매하면 호칭을 생략하고 어~ 이렇게 말을해요. ③ 교사봉사를 하다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하구요. 동생들은 언니라고 많이 하고, 어른들은 이름을 많이 불러요
4. 소통 통로 부재	1) 의사결정 소통 통로 부재	① 우리 이야기를 어른들이 잘 들어주지 않아요. ② 우리가 당회나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③ 교회에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④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것들도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요.
	2) 기혼자와 소통 통로 부재	① 교회에서 기혼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시간도 없고요. 그나마 같이 봉사하는 모임에서 만남을 가지는 정도에요. ② 기혼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관심사가 많이 달라서 참여가 꺼려져요. ③ 기혼자들과 같이 나눔 모임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간적 제한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돌봐줘야했구요. 그래서 나눔이 힘들었어요. ④ 30 대를 위한 모임이 있다고 참여했는데, 완전 기혼자 중심이어서 다시는 가고싶지 않았어요.

표에서 보여지듯이 나는 비혼 청년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필사를 하면서 여러 번 다시 듣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1. 존중결여

존중결여는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첫번째 범주이다.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과 사정이 너무나 다양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의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참여자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는 결혼할 것이나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참여자도 있었다. 비혼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같은 비혼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결혼에 대한 생각과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 청년은 결혼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는 청년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생각이다.

1) 기혼 희망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비혼 청년 중에 기혼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혼자들과 소그룹모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과 만나는 사람의 부재, 현재 삶의 만족도 등으로 결혼시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참여자 B〉

아직까지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지금도 소개팅을 계속하고 만남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고 언젠가는 할 것인데, 당장 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려해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결혼시기도 늦춰지고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H〉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24살때는 26살에 해야지 생각했어요. 또 26살이 되면 28살에 해야지 생각했고, 28살이되자 서른에 해야지 하다가 32에 해야지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은 긍정적인데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삶이 너무 재밌고 바쁘니까요.

결혼을 희망하는 비혼 청년들 안에서도 각자 다양한 원인들로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다양한 원인들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하지못하고 있는 이유도 다양하기때문에 한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비혼 유지

기혼을 희망하는 비혼 청년들과 달리 비혼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이 비혼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하면 여성이 더 희생해야 한다는 가부

장적인 사회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생각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혼에 대한 확고한 생각으로 인해 결혼하지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자체를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D〉

결혼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보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은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찔림이 계속 있어요.

〈연구참여자 A〉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혼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연구참여자 E〉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집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있고, 아버지도 은퇴를 바라보셔서 아직은 생각하기 힘드네요.

비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기혼을 희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비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상황 역시 한가지로 규범화 할 수 없는 다양성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2. 규범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혼 청년은 이럴 것이야' 라고 규범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비혼 청년은 모두가 결혼을 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결혼이 정상이라는 규범화가 되어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규범화가 내제

되어 있다. 규범화에는 언제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있기 때문이다.[45] 이때 교회의 주류의 입장에 있는 성인들은 비혼 청년들을 결혼의 여부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있는 규범화를 하고 있다.

1) 결혼이 정상

결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규범화가 내가 사역하는 Y교회에 있다. 이 규범화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왔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가족은 중시되어 왔다. 기독교의 일부 전통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창세기에서도 결혼을 의미하는 아담과 하와의 첫 장면이 언급된다.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장 18절, 개역개정)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장 24절, 개역개정)

일부 기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을 규범으로 정하고 있다. 그 규범에 맞는 것이 정상이고, 그 규범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청년들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범하고 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회중들은 비혼 청년들을 향해서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한다. 결혼을 빨리 해야 정상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 〈연구참여자 B〉
> *'너는 왜 이제까지 결혼을 안하냐'는 안타까운 시선들을 느껴요. 친한 권사님들께서는 볼때마다 인사차 결혼안하냐고 물어보세요.*

---

[45]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85.

〈연구참여자 G〉

'빨리 청년부 졸업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장년부와서 일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연구참여자 F〉

'빨리 결혼해서 장년에 올라오라'고 해요. 어린시절부터 교회에서 다니다보니 지나친 관심이 많아요

2) 비혼은 비정상

결혼을 정상으로 보듯이 비혼은 비정상으로 규범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주류인 기혼성인들은 결혼을 빨리 하지 않는 비혼 청년들은 빨리 결혼을 하여 정상화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비혼 청년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면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비정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

결혼을 안 할거라고 하면 그러다가는 후회한다고 해요. 한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하라고 하세요.

〈연구참여자 D〉

결혼하지 않은 지금의 저의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줄 알고 불쌍하게봐요. 그 시선들이 느껴져요.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삶을 살아왔고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기혼 성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중심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 그리고 이 잣대로 비혼 청년들을 보고 있다. 이러한 잣대로 비혼 청년들을 보고 있는 한 이들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다. 결혼을 빨리해야 하는 사람이거나, 결혼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유무로 정상과 비정상으로 규범하는 것은 비혼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억압을 경험하

게 만든다.

3. 억압

가부장적인 요소와 일부 기독교전통의 가정 중심주의 가치에 있는 교회의 주류 기혼 성인들은 비혼 청년들을 규범화하면서 억압하게 된다. 억압은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면서 시작된다. 결혼을 이루지못한 비혼 청년은 이미 결혼한 기혼 성인들에 비해 못하고 결핍되어 진 존재로 보여 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혼 청년들은 '주변화'와 '무력감'과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1) 주변화

교회에서 주류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성인들이다. 이 성인들에 의해서 결혼하지 못한 비혼 청년들은 주변화되어 진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이들은 포함되지 못한다. 교회의 최고 의결구조는 당회이다. 당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장로의 선출과정에서도 결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로뿐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도 비혼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청년부에 묶여 있어서 기혼 성인들이 하는 장년부의 결정을 따를 뿐이다. 비혼으로 40대가 되어도 이들은 여전히 청년으로 불리게 되고 청년으로 소속되어 있다. 반대로 20대 초반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신도회와 여신도회에 속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장년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빠르게 직분을 받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E〉

저는 계속 청년부에 있어야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일단 가장 어린 부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동생들도 결혼한 동생들은 장년부에서 이미 집사를 받고 다녀요. 하지만 저는 계속 청년부에 속해 있죠.

이는 교회가 결혼한 사람을 정상으로 보고 결혼하지 않거나 못한 비혼 청년들을 비정상

으로보는 규범화에서 이어지는 억압의 형태이다. 또한 주변화는 비혼청년들이 청년부에서 졸업했을 때 교회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연구참여자 C〉

청년부를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소속이 애매해서 교회활동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혼자 중심의 주변화는 비혼 청년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게 한다. 그들도 청년부에서 20대와 함께 하기에는 공감대가 잘 되지 않는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졸업을 하고 장년부로 올라가지만, 기혼자 중심의 장년부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무력감

기혼자 중심의 교회에서 주변화된 비혼 청년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주류 기혼 성인들에게 언제 결혼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에도, 몇 번은 성의껏 대답하다가도 나중에는 이런 형식의 질문에 순응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저 자리를 피하게 되는 소극적 반응을 보인다. 이들이 처음부터 무력감을 느낀 것은 아니나,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물어보게 되니 자리를 피하거나 흘려 듣거나 그들을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B〉

볼 때 마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이야기를 물어볼 때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D〉

은퇴장로님들이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고 결혼 안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흘려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결혼의 여부를 묻는 환경에서는 자리를 피하거나 흘려 듣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혼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수치심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수치를 당해도 비혼 청년들은 그저 피하고 숨어버리게만 된다.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주변화되어서 주류 기혼성인들의 반응이 당연한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숨어있다.

〈연구참여자 C〉

금요예배 때 공개적으로 OOO자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무력감은 대상화된 비혼 청년들을 소극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불편함이 계속 축적될 때 그들은 교회와 신앙의 자리를 이탈 할 수도 있다.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결혼에 대한 질문에 노출된다.

3) 폭력

비혼 청년을 주변화하며 비정상으로 규범화 할 때 주류의 기혼자는 폭력적인 표현으로 이어지기도한다. 교회에서 물리적 폭력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와 호칭에서 하대하며 낮게 보는 폭력이 진행된다.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호한 편이다.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호칭을 생략하기도 한다. 심지어 '야' 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존칭어로 부르기보다는 반말로 하대하며 대화를 한다. 또한 손짓으로 말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폭력이 있다.

〈연구참여자 B〉

최근에 집사직분받기전까지는 계속 OO청년이라고 불렸어요. 물론 반말로 많이 말하죠. "ooo청년, 이거 했어?" 이런식으로요.

〈연구참여자 A〉

OO야, 이런식으로 이름으로 불리거나 애매하면 호칭을 생략하고 어~ 이렇게 말을해요. 가끔 급하면 야 하면서 반말로 말하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D〉

교사봉사를 하다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하구요. 동생들은 언니라고 많이 하고, 어른들은 이름을 많이 불러요. "OO야. 하고 말이죠."

비혼 청년들은 기혼자에게 반말과 하대를 듣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오랫동안 청년들을 보아온 경우에는 대부분 반말로 이름을 부른다. 상대가 40대가 넘어가도 여전히 이름으로 부르며 반말로 부른다. 같은 나이에 기혼자라면 이름과 반말로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기혼 청년들에게 하대하며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언어적 폭력의 억압과 손짓 등의 비언어적 폭력이 나타난다.

4. 소통 통로 부재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기혼자들과의 모임에 대한 경험과 긍정, 부정의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전체적인 소통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기혼자들과의 모임을 넘어서 교회 전체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의 부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통의 부재에 대한 것은 두가지의 주제군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비혼 청년들이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사결정의 소통통로부재로 주제군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기혼자들과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부재되어 있는 기혼자와 소통 환경부재 주제군으로 나누어졌다.

1) 의사결정 소통통로 부재

비혼 청년들은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자신들의 의견이 교회 전체에 반영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어놓지 않았다. 또한 적극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곳에서 비혼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H〉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묻고 진행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G〉

우리가 당회나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연구참여자 F〉

교회에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E〉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도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요.

비혼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구조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데, 비혼 청년들은 대부분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최고의사결정을 가진 당회에 전달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비혼 청년들은 자신들도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 기혼자와 소통통로 부재

비혼 청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통로가 부재함에 안타까워했지만, 기혼자들과의 모임 또한 부재한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연구참여자 F〉

교회에서 기혼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시간도 없고요. 그나마 같이 봉사하는 모임에서 만남을

가지는 정도에요.

〈연구참여자 A〉

기혼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관심사가 많이 달라서 참여가 꺼려져요.

〈연구참여자 G〉

기혼자들과 같이 나눔 모임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간적 제한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돌봐줘야 했구요. 그래서 나눔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D〉

30대를 위한 모임이 있다고 참여했는데, 완전 기혼자 중심이어서 다시는 가고싶지 않았어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기혼자들과의 모임 또한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비혼 청년들과 기혼자들의 모임이 없는 이유는 교회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기혼자 중심으로 모임이 진행되는 식으로 비혼청년들이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이 모이는 모임을 진행했을 때 시간과 공간 역시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혼 청년들은 기혼자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들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반영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결혼 유무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으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거나 불쌍한 존재로 보면서 규범화를 한다. 그로 인해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억압을 경험해왔다. 또한 비혼 청년들은 교회의 의사결

정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기혼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 또한 배제되며 기혼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0대 비혼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할까? 이러한 이유를 다음 장에서 찾아보려한다.

Chapter III

이론적 배경(Theoretical Background)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결혼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소통의 통로가 없는 경험을 하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강요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어 혹은 비언어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이 겪는 차별의 상황을 고민하던 중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 수업 중 강남순의 포스트 식민주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포스트 식민주의 수업은 30대 비혼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의 경험에 대해 고민하던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이 내가 소속된 곳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식민주의적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억압과 차별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을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보려한다.

A. 포스트 식민주의

A.1. 포스트 식민주의의 정의

포스트 식민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책 오리엔탈리즘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식민주의를 펼쳤던 나라들, 특히 서구의 나라들이 식민통치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을 법제화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생긴 해석들과 억압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억압과 강제되어져 있는 식민주의적 환

경에서 이를 파악하고 반대하여 다시 세우려는 생각들이다.[46]

포스트 식민주의의 연구에 대해 이영진은 이렇게 말한다.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싹트고 또 인식되기 시작한 내적 곤경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일련의 연구 경향성을 총칭하는 명명이다.”[47]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식민주의를 주로 영어권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급속하게 하나의 연구 형태를 띄어왔다.

포스트 식민주의는 서구의 이분법적인 서구중심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절대성도 비판한다. 식민지로써 지냈던 곳은 서구에 의해서 타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서구를 타자로 바라봐야한다. 이럴 때 식민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생긴 억압과 차별이 보이게 된다.[48] 식민지로 지배하던 제국은 무조건 나쁘고, 피식민지였던 곳의 문화는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강남순은 “포스트 식민주의 담론은 서양과 동양의 환상을 모두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49]고 말한다. 서로에 대한 환상이 없을 때 올바른 타자화가 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볼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포스트 식민주의를 주장한 학자마다 각자 중요한 지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바바(Homi K. Bhabha)는 혼종성을 강조했고, 사이드(Edward Said)는 오리엔탈리즘의 허구성을 폭로했으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성별화된 국제노동상황을 비판했다.[50] 그래서 포

---

[46]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55.

[47] 이영진, "제국의 곤경과 저항의 논리: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 리뷰," *사회과학연구* vol. 60, no. 1 (April 2021): 305-35.

[48] 양종근, "민족주의/탈식민주의, 보편성," *人文硏究* vol. 67, no. 1 (June 2013): 289-318.

[49]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404.

[50] 양종근, 302.

스트 식민주의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정치적인 메시지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주제로 점차 바뀌었고, 민족주의에서 계급, 젠더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이 확장이 신학으로도 적용이 되었다.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할 때 타자화 된 존재로서 평등, 배제된 존재로서 포괄, 억압된 집단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남순은 말한다.[51]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의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에는 서양의 전통적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지점 중 결혼을 중시하는 전통에 많이 담겨있다. 이를 강남순은 "기독교의 성서가 표상하고 있는 가족은 창세기에 최초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양성의 핵가족형태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의 의미로 규정이 된다"고 말한다.[52] "특히 구약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창세기에서 열왕기서에 걸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위계주의적 가부장주의적 가족이다."[53]
교회에는 서구 전통의 위계주의적 가부장주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중심으로 차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아이리스영은 5가지 억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A.2. 아이리스 영의 5가지 억압의 모습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차별과 억압이 생긴다. 이는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억압에 대한 성찰과 포스트 식민주의 관점이 만나게 된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억압을 다섯가지(착취와 주변화, 무력감, 문화제국주의, 폭력)로 정의하고 있다.[54]

---

[5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414.
[52] 강남순, 199.
[53] 강남순.
[54]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06-07.

첫째는 착취이다. 착취는 한 사회집단의 노동산물이 타 집단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전되는 항상적 과정을 통해서 억압이 생긴다고 말한다.[55] 이를 교회에서 적용해보면, 교회의 주류가 되는 기혼자들은 비혼 청년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대상화하기도한다.

〈연구참여자 G〉

빨리 청년부 졸업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빨리 결혼해서 장년부와서 일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비혼청년들은 기혼자들에게 봉사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교육부를 봉사하라던지, 빨리 장년이 되어서 막내로서 봉사하라고 압박을 준다. 기혼자들이 비혼청년들을 교회의 봉사를 하는 존재로 보는 모습은 아이리스 영의 착취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는 주변화이다. 주변화는 노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다.[56] 주변화는 주요한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노동시장에서도 주로 노인, 주류인종과 다른 인종들이 배제가 된다.[57] 이를 교회의 상황에서 비혼청년들이 받는 경험으로 가져와보면, 교회의 주요한 직분을 받지못하는 조건이 그러하다. 교회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집사가 먼저 되어야하고, 그 이전에 서리집사가 되어야 하는데, 비혼청년들은 집사를 받는 자리에서 배제 되어있다. 사실 누가 먼저 묻는 것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기혼자들에게 직분을 준다. 그러니 주요한 의사결정구조에서 비혼 청년들은 소외되고 주변화가 된다.

---

[55]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24.
[56] Young, 131.
[57] Young, 132.

〈연구참여자 H〉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묻고 진행하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E〉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도 우리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요.

주변화를 경험하는 비혼청년들은 발언권 제한을 경험한다. 그들의 의견이 교회 전체의 목소리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는 단절된다. 비혼청년들은 여러 봉사의 자리에는 필요한 존재로 쓰여지나, 의견이 반영되는 곳에서는 주변화로 인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무력함이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일부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특권의식이 더욱 많아지게 되며, 반대로 억압에 있는 자들은 무력감이 생긴다는 것이다.[58] 교회현장에서도 비혼 청년들은 무심코 듣게 되는 "결혼 언제하느냐"하는 소리에 더 이상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연구참여자 D〉

볼 때 마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이야기를 물어볼 때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하게 되요.

〈연구참여자 B〉

네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남의 자식에 관여하는 게 오버스럽기는 하지만,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마 신앙공동체니까 말하겠죠.

---

[58]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7.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교회의 어른들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거부의사를 보여도, 하지말라는 반응을 보여도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빨리 결혼하라는 요청은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비혼 청년들에게 무력감을 가져온다.

넷째는 문화제국주의이다. 문화제국주의는 사회의 주도층들이 어떤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 그들의 특성을 무시한 채 상투적인 관념을 부여한다. 그래서 그들을 타자로 만들면서 동시에 특수성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59] 문화제국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정의되어지며, 위치가 지어진다. 이들은 주류계층으로부터 열등한 존재로 인식 받게 되어 영향을 받는다.[60] 교회 주류층들은 교회 내부의 비혼 청년들을 "청년"으로 규정한다. 그들안에는 20대초반의 성인부터 40대가 훌쩍 넘은 장년까지 포함되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청년"이라고 규정된다. 그리고 청년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하는 사람들,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되어진다.

〈연구참여자 C〉
'너는 왜 이제까지 결혼을 안하냐'는 안타까운 시선들을 느껴요. 친한 권사님들께서는 볼때마다 인사차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들에게 계속 결혼을 해야한다고 물어보게 된다. 대상자들이 결혼생각이 전혀 없이 비혼으로 살 계획을 가졌다 해도 교회의 주류들은 비혼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미래의 일처럼 말하며, 이를 이루지못한 사람들로 규정한다. 비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르다. 그들 중에는 계속

---

[59]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1.
[60] Young.

비혼으로 살려고 계획하는 청년 또한 있다.

〈연구참여자 A〉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혼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다양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지는 것은 비혼청년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자를 미성숙하게 보는 생각들은 비혼청년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는 폭력으로 구분한다. 폭력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않았음에도 폭력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61] 폭력에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모욕하거나 위협, 또는 조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62] 교회의 상황에서 보자면,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기혼 장년들은 비혼 청년들에게 호칭적으로 하대하는 경우가 흔하다.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기혼자인 경우는 직분을 부르거나 더 조심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혼인 경우는 호칭을 생략하거나, 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연구참여자 H〉

OO야,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불리거나 애매하면 호칭을 생략하고 어~ 이렇게 말을해요.

〈연구참여자 B〉

최근에 집사직분받기전까지는 계속 OO청년이라고 불렸어요. 물론 반말로 많이 말하죠. "ooo청년, 이거 했어?" 이런식으로요.

비혼 청년들은 호칭의 문제에서부터 하대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름을 부르거나, 심지

---

[61]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6.
[62] Young, 147.

어 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늘 가르침의 대상이 되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며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되어지기도 한다.

30대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포스트 식민주의의 관점으로 보니 차이와 억압이 보이게 되었고, 아이리스 영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니 비혼 청년들은 교회에서 결혼에 관한 전통적가치에 의해 많은 억압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되었다. 나는 이런 상황속에서 비혼자들이 계속해서 억압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혼자와 비혼자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다음장에서 찾아보려 한다. 또한 나는 기혼자와 비혼자의 관계를 넘어서 비혼자로 사는것도 불완전한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임을 모색하려한다. 김혜란은 독립성과 자족적, 자제력의 개념에 도전하면서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삶의 방식이 공동체 적이고 체계적이기에 마땅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3] 이러한 상호의존이 억압상태에 있는 비혼 청년들에게 대안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3]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21.

Chapter IV

상호의존적 대안(Interdependent Alternative)

교회 안에 있는 30대 비혼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식민주의적사고로 인한 차이와 억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혼자 중심으로 보는 식민주의적 생각은 변화가 필요하다. 기혼중심의 생각이 비혼 청년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려 했다.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세대간에 소통을 활성화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구술시험을 통해서 내가 패배주의에 입각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호의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교회의 틀거리 속에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30대 비혼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던 대상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현재 교회에서 비혼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답신이 온 대답 중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하는 만큼의 비혼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꼭 결혼을 해야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또 일부는 자신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보니, 30대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억압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혼 청년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비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혼 청년들은

비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했지만, 비혼이 비정상이라는 규범화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차별과 억압을 납득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로 인해 자리를 피하거나 대꾸하지 않는 식의 무력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생긴 인식들을 비혼 청년들 내부에서 먼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은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 중 김혜란의 상호의존성 수업을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30대 비혼 청년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먼저 인식의 변화를 시도해보았다. 그러기위해서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비혼청년들이 모여서 비혼자의 눈으로 본 성서읽기를 진행하여 비혼자들의 삶을 치유하고 사역하는 목회자와 목회 돌봄을 회복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를 통해 해석된 성서본문으로 상호의존적 설교를 준비하여 예배 중 시현하였다.

A.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은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오는 다섯 가지의 억압의 형태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치는 우리가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특별히 독립성에 대한 개념이 영국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로부터 형성되었는데, 그는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토대로 건설되었다고 말했다.[64] 하지만 이 같은 독립성의 주장은 아이리스 영이 지적하는 다섯가지 억압의 상황을 지속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독립성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는 사상들은 부유한 유럽

[64] John Locke, *Second Treatise on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1952), chap. 2 and chap. 4, 98, quoted in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33.

백인남성들을 가정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말하는 독립성과 개인적인 자유는 식민지에서 노동과 자본을 빼앗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나의 자족적 삶이 타자의 노동과 섬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구는 아프리카의 식민화과정에서 피식민지 사람들을 분열하고 그들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독립성과 개인적인 자유를 얻었다.[65] 서구에서 말하는 독립성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 모든 사람을 표준화된 기준에 순응하게 만들며 오히려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영향을 가져오기도 했다.[66] 장애가 있거나, 젠더에서 주류에 있지 않거나, 인종적으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들은 평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오히려 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서구에서 독립성을 기준으로 표준과 비표준을 규범화했듯이 결혼을 기준으로 결혼한자를 표준, 결혼하지 못한 자를 비표준으로 정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결혼해야 독립하고 정상이라는 것은 비혼 청년들을 더욱 차별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상호의존성은 "상호적인 삶", 또는 "함께 살아감"과 통하는 "상생"을 보여주고 있다.[67] 이 상생은 독립성을 넘어서 살아내는 대안을 보여준다.[68]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삶에 대해서 "전 삶에서 하나님의 망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전체"[69]라 말한다. 독립성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상호의존성은 오늘날의 비혼 청년들을 대하는 교회에서

---

[65]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34.
[66] Kim-Cragg.
[67] Kim-Cragg, 265.
[68] Kim-Cragg.
[69] Kim-Cragg.

주목해야할 것이다. 기혼자나 비혼자나 모두가 함께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바울을 비롯한 비혼을 주장했던 신앙인들과 기혼자인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결혼문제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상호의존적 삶은 30대 비혼 청년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상호의존적인 대안은 비혼 청년들을 온전한 성인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와 이성애 가족만을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으로 보는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혼 청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차별은 그들을 온전한 성인으로 보지 못하며 이성애 가족을 만들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볼 때 상호의존성이 갈등 치유와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A.1. 성인과 상호의존성

서구의 주류 생각인 독립성의 개념은 장애와 인종, 젠더를 넘어서 어린이와 젊은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보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특별히 어린이와 젊은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인됨의 신화이다.[70] 가르친다는 것에서부터 억압이 시작된다. 교육, 교육학이라는 뜻을 지닌 페다고지(pedagogy)라는 용어는 소년을 의미하는 pedo와 지도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의 agogos가 연결된 단어이다. 이 용어의 기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성인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어린이들이 가르침의 대상이다.[71] 어린이와 어른을 나누는 기준은 독립성과 의존성이다. 독립성으로 자립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본다면, 독립성이 부족하여 의존적으로 살아가면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의존은

---

[70]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43.
[71] Kim-Cragg, 43-44.

무책임과 미성숙이라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72] 정상화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성인의 삶은 최대한 생산적이고, 경쟁력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나이와 경제력도 충분한 상황을 뜻하게 된다.[73] 반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 이때 미성숙한 사람을 비인간화하면서 억압의 현상이 나오는데, 나이로 위계를 나누고 어린 사람들을 억압하는 현상도 나오게 된다.

어린 사람을 미성숙으로 보고 억압하는 현상은 비혼청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어른 성인들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비혼자들이 빨리 결혼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빨리 장년이 되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에는 비혼 청년들은 아직은 미완성이고 교육이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성인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상호의존성은 일방적인 어른이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한다. 특히 예배와 종교에 있어서도 어른들이 아이와 젊은이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젊은이와 아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배움은 서로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고 충만한 시간을 기여할 수 있다.[74]

어린이와 젊은이들과의 상호의존성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금지와 규율을 넘어선다. 서구 전통의 예배에서 어수선함과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혼합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규율과

---

72 Kim-Cragg, 44.

73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45.

74 Kim-Cragg, 140.

금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수선함을 넘어서 예배할 때 놀라운 상호의존성이 나온다. 선생인 우리는 배움의 씨앗을 심더라도 자라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75] 상호의존성으로 어린 세대,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것은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76] 이 접근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너머에 있는 것을 말한다.[77] 교회에서 비혼 청년들을 따로 묶어서 청년부로 묶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함께 하는 예배와 모임들이 주는 상호의존적인 도움이 있다.

A.2. 가족과 상호의존성

교회의 기본 구성단위에는 가족이 있다. 김혜란은 북미권에서 가족은 이성애적 가족으로 규범하고 있다.[78] 그래서 그 가족의 규범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또한 억압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가족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이다.[79] 또한 가족은 종교적 삶에서도 중요하다. 신앙의 형성은 가족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80] 이때 어떤 가정이 올바른 것이냐고 말하는 규범성이 작동하려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규범은 비정상성을 필요로하고 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81]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가족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규정되지

---

[75]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144.
[76] Kim-Cragg, 144.
[77] Kim-Cragg, 145.
[78] Kim-Cragg, 75.
[79] Kim-Cragg, 84.
[80] Kim-Cragg.
[81] Kim-Cragg, 85-86.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목적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또 ‘우리 되는 것이 왜 중요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82] 이런 질문들 속에서 비혼 청년들이 비혼으로 사는 것을 계속 택할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상호의존성은 보기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보는 행위에는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가지 사물만을 보지 않고 사물들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본다.”[83] 자주 노출되면서 그것을 맞다고 규범짓고 그와 다른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의 특정한 방식인 “패싱”이라는 행위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지 못하는 무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능력을 말한다.[84] 예컨데, 인종을 바라볼 때 외양이 인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 시야의 문제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보는 것이 패싱인데, 이는 혼종을 창조하게 된다. 혼종이란 “거의 같지만 사뭇 다른” 현실이 혼종성이다.[85]

이러한 패싱으로 보는 방식은 방기와 너머를 보는 방법으로 기존에 억압적인 현상을 보도록 해준다. 이 관점으로 현상들을 보게 된다면, 비혼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을 비정상의 규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의 존재로 보게 될 것이다. 상호의존적인 패싱으로 너머를 보는 방식은 교회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가정의 기혼자 성인들이 비혼 청년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렌즈를 준다.

---

[82] Kim-Cragg.

[83] Berger, *Ways of Seeing* (London: BBC and Penguin,, 1972), 8-9, quoted in Kim-Cragg,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 102.

[84] Kim-Cragg, 104.

[85] Kim-Cragg, 105

B. 상호의존적 대안으로 성서읽기

상호의존성으로 구체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비혼 청년들 내부의 비혼자의 눈으로 읽는 성서읽기를 진행해보았다. 먼저 인터뷰에 응했던 8명의 비혼 청년들에게 성서읽기를 제안하였고 동참 가능한 5명의 비혼 청년과 함께 성서읽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안에 응한 비혼 청년들에게 결혼과 비혼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구절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들이 보내준 비혼에 대한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표 5〉 성서읽기에 참여한 사람

	추천성서구절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
참여자 A	창세기 1장 27-28절; 창세기 2장 18-24절	결혼에 긍정적
참여자 B	창세기 2장 18-24절; 마가복음 10장 6-9절	결혼에 긍정적
참여자 C	고린도전서 7장 11절; 에베소서 5장 33절	적극적으로 결혼할 예정
참여자 D	창세기 2장 18-24절; 마가복음 10장 9절	결혼에 회의적
참여자 E	창세기 2장 18-24절; 고린도전서 7장 28절	결혼에 가장 회의적

참여자들이 보내준 결혼에 대한 본문과 성서에서 대표적인 비혼자였던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이 말한 결혼과 비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는 토요일 낮 1시에 줌(Zoom)으로 2시간 30분동안 모여서 성서읽기를 진행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나는 본문들은 창세기 2장 18절, 2장 24절의 본문과 이를 예수께서 인용하신 마가복음 10장 6-8절의 본문을 가장 많이 택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도 두 명이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창세기 2장 18-24절과 마가복음 10장 6-8절을 깊이 함께 보고, 더불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한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읽었다. 이후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서의 비혼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여서 성서를 읽기 전 먼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성서본문들을 통해서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성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본문을 여러 번 읽게 하였고, 생각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성서읽기 전 5명의 비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결혼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두명의 청년들은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결혼을 할 예정이고, 한 명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으며, 다른 두명의 청년은 계속 비혼 상태로 살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과 창세기 2장 18-24절과 마가복음 10장 6-8절의 내용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을 물어보았다. 4명 모두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한다고 이야기했다.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라는 창세기를 볼 때 대상자들은 대부분 성서내용에 수긍하는 반응이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꼭 하겠다고 말한 참여자는 현재 결혼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생각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혼 상태로 살겠다고 생각한 참여자는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임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있는 것이 특별히 나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청년이 창세기 2장 18절의 성서를 인용하면서 혼자 사는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고 바울의 삶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은 이 본문을 읽고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본문과 정작 비혼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을 듣기 전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본문과 바울의 삶을 함께 읽고 난 뒤에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모두 괜찮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특히 그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결혼을 하라고 말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바울 자신도 비혼 상태로 살았던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비혼으로 살기로 계획하는 청년도 이 본문을 읽고 비혼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다른 비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결혼과 비혼에 대한 관점으로 성서 읽기를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비혼 청년으로 교회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의 모습들로 인해 교회는 결혼을 해야지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비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무언가 일탈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며, 비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교회에서 한번도 비혼으로 지낼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비혼에 대한 성서본문과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기혼으로 사는것과 비혼으로 사는 것 모두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비혼 청년들과 성서를 함께 읽는 것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규범화와 패싱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비혼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가졌던 결혼이 정상이며 반드시 해야한다는 관점도 많이 사라졌으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들을 보게되었다.

〈표 6〉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성서 읽기 후 변화된 생각
참여자 A	결혼에 긍정적	결혼 여부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네요.
참여자 B	결혼에 긍정적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과 결혼을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C	결혼에 긍정적	저는 계속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D	결혼에 회의적	결혼여부가 교회에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결혼에 회의적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도 비혼으로 살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상호의존적 대안으로 설교하기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성서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을 토대로 설교문을 작성하여 예배에서 사용하였다. 본문은 비혼 청년들이 선택한 본문들이며, 함께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였다. 기혼만이 맞는 것이라고 규범된 교회의 경험들 속에서 규범화를 넘어서 '보기'의 방법으로 비혼주의자들이 당당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하였다. 상호의존적 대안으로 설교한 원고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설교를 통해서 비혼 청년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규범화의 틀을 깨고, 비혼과 기혼의 구분없이 상호의존적인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보았다. 또한 예배 후에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소그룹으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연스럽게 비혼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서 느꼈던 억압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다.

〈표 7〉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

	구성원	소모임에서 나눈 생각
그룹 A	20대 초반 비혼남녀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혼자사는게

		이상한게 아니라는 말에 동감해요.
그룹 B	20대 후반 비혼남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 시점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 다른 청년들을 이상하게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변한 것 같아요.
그룹 C	30대 초반 비혼남성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초조해하면서 빨리 결혼자체를 하려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그룹 D	30대 초반 비혼여성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비혼으로 사는 것을 혼자서만 생각한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신은 앞으로도 비혼으로 살 것임을 밝혔어요.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도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비혼 기독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그 렌즈로 자신들을 보았음을 말했다. 그러나 결혼이 정상이라는 규범화를 넘어서니 자신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점도 생겼다. 비혼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게될 때 상호의존적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Suggestion)

기업에서도 주요한 고객층이며, TV 예능에서도 주로 다루는 계층이 비혼 청년들이다. 특히 30대를 넘어선 30대이상의 비혼 청년들에게 관한 상품과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결혼자체를 미루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혼 청년들은 많아지고 그들의 나이는 점점 많아 질 것이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치에서도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사회와 기업의 서비스도 비혼 청년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사역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기혼자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 가정의 아이, 부모세대를 교회에서는 함께 돌보고 목회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는 결혼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가정중심으로 목회를 했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회와 늘어나는 비혼자들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나는 8년동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군인 청년들을 목회했고, 전역한 이후로도 청년들을 목회하고 있다. 그런데 한결 같은 것은 교회는 청년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을 청년부라는 곳에 소속되도록 하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교회의 주요한 의사구조에는 배제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어린 아이처럼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군교회는 청년 군인들이라는 신분적 제한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전역후에 사역하게 된 곳에서도 군교회와 다를 바 없는 제한을 보게되었다. 비혼 청년들의 목소리는 교회의

전체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직분을 받아야지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다. 직분은 기혼자를 중심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혼 청년들은 직분도 받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적 억압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기독교 비혼 청년들은 이 또한 불편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사회에서도 비혼 청년들을 어리게 보거나 사적인 부분인 결혼에 대해서 함부러 묻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는 비혼 청년들을 어리게 보고 결혼을 강요하는 듯한 물음을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비혼 청년들이 교회로 유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또 기존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가 군교회에서 8년간 청년들과 사역할때에는 이러한 구조적 억압에 대해서 한번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유지되기위해서는 아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클레어몬트 대학의 갈등, 치유, 회복의 수업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다. 내가 당연시 여기던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들었다. 이 생각은 내가 사회에 나와서 사역하게 된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담당하면서 더 커지게 되었다. 학학교에 배운 것을 토대로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보았다. 먼저 주목되었던 것은 20대와 30대, 심지어 40대까지 청년부라는 교회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왜 이들은 청년으로 규정되었는지, 누가 이들을 청년으로 묶어 놓았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특히 3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 좀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 그들과 비슷한 또래의 기혼자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다. 30대 이상 비혼자들은 청년으로 되어있고, 기혼자들은 신도회로 소속되어 직분도 받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기혼자와 비혼자를 구분하여 나눠져 있는 현상을 보면서, 클레어몬트 박사과정 수업 중에서 김혜란이 가르친 상호의존성 수업이 생각나게 되었다. 상호의존성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도 연계되어 생각났다. 그리하여 나는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억압의 대우를 받는 이유를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찾게 되었다. 식민주의적 사고가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교회에서는 비혼 청년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 영등포의 Y교회에서 30대이상 비혼 청년 8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현재 Y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중 네 명은 청년부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네 명은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은 교회의 각 봉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다. 나는 이들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내용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질적 연구하였고, 콜라이지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심층 면담에서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군, 2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의 결과 중 4개의 범주는 같은 청년들이라도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존중결여, 교회에서 결혼을 정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비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범화, 또한 기혼의 주류의 교회 문화 속에서 받고 있는 억압, 그리고 소통까지도 원활하지 못하는 소통 통로 부재로 구분하였다. 이 어려움들을 포스트 식민주의적 관점과 아이리스 영의 5가지 억압의 모습을 참고하여 해석하였고,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대안을 찾아보았다.

대안을 찾는 방식 속에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적 생각이 가득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변화만 있거나, 이미 조직에 순응한 사람들처럼 조직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온 대안적 방법이 기혼자와 비혼자를 섞어서 만드는 모임을 주도하려했다. 그러나 과연 기혼자와 비혼자가 같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는 것만이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구술시험을 통해서 김남중과 김혜란에게 대안을 다시 찾을 것을 제안받았다. 이를 통해 내가 내리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단지 상호의존성을 기혼자와 비혼자의 만남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교회에서 비혼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와 인식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비혼 청년들에게 대한 억압적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꿔야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담당 목회자의 비혼 청년들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였다.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담당목회자가 비혼 청년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클레어몬트의 수업을 듣기 전의 나를 생각해볼 때, 청년들을 단지 결혼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생각이 식민주의적 관점의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비혼 청년들이 겪는 억압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인식 변화였다.

목회자의 인식이 변화된 후 그 다음으로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았다. 나는 교회의 구조적인 억압에 순응해 있는 비혼 청년들의 인식이 어떻게하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결혼을 안 하는지 묻는 질문들이 불편하더라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인식이 치유되어야 했다. 비혼자는 결혼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도 치유되어야 했다. 특히

비혼 청년들 스스로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비혼 청년들과 상호의존성 이론으로 함께 성서 읽는 모임을 가졌다. 성서읽기를 진행할 때 기혼과 비혼에 대한 성서본문을 찾아보았고, 비혼자들의 눈으로 보는 성서읽기를 진행하였다. 비혼 청년들이 제안한 본문들을 선택하여 깊이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함께 성서를 읽는 과정 중에서 비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과 결혼하지 못한 자신을 보는 생각들이 나왔고, 이 생각들의 출처도 발견하게 되었다. 성서를 함께 읽으면서 자신들이 결혼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고백들도 하게 되었다. 비혼 청년들은 비혼자의 눈으로 성서읽기를 통해서도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서읽기 모임에서 선택한 본문과 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나오게 된 해석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여 예배 때 설교하였다. 이후 소모임에서 결혼과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교회에서 받은 경험들과 나아갈 대안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설교와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과 억압에 당연한 듯 순응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연구의 시간적 제한으로 이후의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비혼자의 눈으로 보는 성서읽는 모임과 설교와 나눔을 통해서 변화된 인식들을 예배로 꾸며가는 시도도 해 볼 예정이다.

미래의 가족 구조는 계속 변화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계되어 비혼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가정을 가졌던, 가정을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 만민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고 목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어떤 상황에 의해 비정상으로 취급되거나 억압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사회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셨다.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세리와 몸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과 고통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또한 너희들의 탓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정상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세심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비혼 청년들 역시 무력감에서 탈피해야 한다.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규정되고 마치 결혼을 빨리 해야만 하는 존재로써 취급받을 때 가만히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현재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년 성인들은 비혼 청년들에게 결혼여부를 묻거나 빨리 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한다. 내가 시도해본 것처럼 비혼자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예배 때 나누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시도들이 더해졌을 때 비혼 청년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될 것이다. 또한 기혼 장년들이 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자신들이 억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 전체의 인식이 변화될 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의 동등한 공동체이며 지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대안들의 시도들을 통해서 비혼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회 돌봄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어의 변화이다. 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소에 미혼이라고 쓰던 단어를 비혼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미혼에는 아직 결혼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처럼 무의식적으로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차별적 단어를 쓰는 경우가 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자들을 위한 목회 돌봄을 행할 때 평소에 쓰는 언어를 생각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목회자부터 먼저 언어가 변화되니 비혼 청년들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청년들에게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는 단어를 계속적 사용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예정이었던 청년이 고맙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와 좀더 깊은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언어의 변화는 존중의 결여를 느끼는 비혼 청년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줄 수 있다. 언어의 변화를 목회자 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변화되어 사용한다면, 비혼 청년들이 좀 더 존중의 경험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는 성경공부 내용의 변화이다. 나는 비혼 청년들에게 목회를 할 때 성경공부를 통해서 비혼청년들에게 당연히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번도 비혼 청년의 눈으로 성경을 읽거나 관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혼 청년들과 비혼자들의 눈으로 성서 읽기를 하였을 때, 목회자인 나와 청년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전에는 결혼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려 하지 않았으나, 비혼자들의 눈으로 성서 읽기를 같이하고 성경공부를 하였을 때, 이들은 목회자에게 좀더 편안하게 자신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공부의 변화가 비혼 청년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목회자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성경공부의 다양한 관점의 변화가 비혼 청년들의 모임 뿐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모임에서도 진행된다면, 교회 다니는 비혼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해야한다는 기존의 규범화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셋째는 목회자의 설교의 변화이다. 나는 설교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결혼관에 대해

규범화와 이에 따른 억압들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혼자의 눈으로 읽은 성서읽기를 토대로 설교를 작성하여 선포하였을 때, 의도적으로 결혼관에 대한 규범화와 억압적 메시지를 배제하기위해 노력해보았다. 그 결과 메시지를 들은 비혼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더욱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결혼하지 않을 계획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되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가 변화되었을 때 비혼 청년들은 결혼관에 대해서 받게 되는 억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설교의 메시지가 전체 교회 회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결혼관에 대한 억압적 경험들이 치유되고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소그룹에서 다양한 결혼관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다. 다양한 결혼관들을 수용해주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때, 비혼 청년들은 결혼관이 다른 청년들과 좀더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느꼈다. 또한 기혼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양한 결혼관이 인정됨을 알았을 때, 비혼 청년들은 교회와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조금 더 열린 것을 경험하였다. 비혼 청년들이 교회 안의 다양한 소모임들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구조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교회와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생각되는 경험에서 치유되고 회복 될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하는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나 자신일 것이다. 30대 이상 비혼 청년들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규범화 시키려 했던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다. 클레어몬트의 수업들은 내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묵인되어온 갈등과 억압, 차별의 요소를 보여주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또한 보여주었다. 그러나 갈등과 억압의 구조만을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억압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르쳐주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비혼 청년들을 목회하는 나 자신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갈등과 억압의 상황을 규범화와 패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갈등과 억압의 모습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혼에는 기혼이었다가 이혼으로 비혼이 된 성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이혼한 분들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혼한 비혼자들을 위한 목회 돌봄의 실천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 이후에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이혼한 분들처럼 교회에서 분명히 있으나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들이 받는 억압의 상황을 찾아서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전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Y교회의 30대 이후 비혼 청년들을 향한 상호의존성의 목회 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30대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의 김남중/김혜란 교수님의 지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김남중 교수(njkim@cst.edu, ***-***-****), 김혜란 교수 (hyeran.kimcragg@utoronto.ca,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바를 파악하고, 상호의존성의 신학으로 목회적 돌봄의 방향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30대이상 비혼 청년들의 목회적 돌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다면, 귀하는 인터뷰에서 60분에서 90분정도 참여하게됩니다. 인터뷰의 진행과정 속에서 인터뷰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필사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녹음파일과 필사본은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연구가 끝나면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필사한 내용은 연구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추가 면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개인정보가 담긴, 이름, 이메일 등도 연구하는 기간만 보관되다가 연구종료 후 모두 폐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Zoom을 통한 온라인 인터뷰를 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연구동의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Zoom을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터뷰과정이 녹화되며 모두 필사될 것입니다. 녹취본과 필사본은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연구가 끝나는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연구참여를 철회한다고 하여 학교와 교회에 대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연구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참여를

원치 않으시다면 참여철회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연구이기에,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연구자인 전은성 목사의 연락처(000-0000-0000, eunsung.jeon@cst.edu) 로 연락바랍니다.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000-0000-0000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참여하고자 하는 방법(온라인/오프라인):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부록 B: 설교문 요약

(Appendix B: Summary of the Sermon)

요즘 TV나 방송에서는 혼자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MBC의 '나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오랜시간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보니 최근 통계는 결혼의 초혼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남자 33세와 여자 31세가 최근 처음 결혼하는 나이라고 해요. 이는 불과 30년전 남자 28세 여자 25세보다 각각 5년씩 늦어진 것입니다. 3포시대, 5포시대를 넘어서 N포시대가 되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기도하고, 부동산 가격의 터무니없는 상승으로 결혼은 더 미뤄지기도 합니다. 비단 결혼하는 나이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비혼자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시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처녀, 노총각, 골드미스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이런식의 이야기도 하지 않지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진데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생각에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이미 계신 많은 분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어른들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결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니', '빨리 해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도하고 또 대답하기 힘들거나 싫은 상황에서도 질문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질문을 받을 때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사회에서는 단호하게 말할텐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과 비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은 아무래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본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혼자 있는 것 나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은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7-8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도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결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도 결단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다른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결혼의 유무가 사역을 하거나 삶을 이어가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혼이셨고, 바울도 비혼이었지만 충분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혼이었던 베드로 역시 자신의 일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것은 비혼이나 기혼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열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우리의 결혼 여부가 온전한 삶을 이루는데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못한 상황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상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일부는 비혼으로 홀로 살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짐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비혼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지않으셔도 됩니다.

결혼을 꿈꾸는 자나, 이미 결혼한 자나, 비혼을 다짐하는 자 모두 온전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혼 여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혼 여부가 우리를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존중하며 상호의존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1차 자료 (Primary Resources)

[한서]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Edition*.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번역서]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 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 신학*. Translated by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서회, 2012.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7.

[저널 및 논문]

강민석. "3040세대 싱글 청년들을 위한 예배 사역에 대한 연구."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9.

강유진.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PsyM thesis,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권미주. "비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공동체의 머무름의 목회신학 연구." DMin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2019.

김용우. "40대 기독교 남녀의 비혼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노미선.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MA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류경희 and 왕석순. "기혼자의 ‘결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싱글’과 대비한 ‘결혼’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3, no. 2 (June 2011): 89–107.

심경미. “하나님의 형상 비혼지체들.” *새가정* vol. 65 (July 2018): 19–23.

양종근. "민족주의/탈식민주의, 보편성." *人文硏究* vol. 67, no. 1 (June 2013): 289–318.

이민경. "청년들의 마음체제에 대한 질적 분석: 30대 싱글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vol. 1, no. 109 (July 2020): 97–135.

이영진. "제국의 곤경과 저항의 논리: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 리뷰." *사회과학연구* vol. 60, no. 1 (April 2021): 305–335.

한혜림. "30~40대 자발적 비혼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PhD diss.,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9.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혼.”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2492&searchKeywordTo=3.

________________________. “독신.”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________________________. “미혼.” Accessed May 1, 202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29350&searchKeywordTo=3.

통계청, “시도별평균초혼연령.” March 3, 2021.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2차 자료 (Secondary Resources)

[한서]

강남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저널 및 논문]

강남순.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13, no. 1 (September 1996): 300–348.

______. “종교·가족·페미니즘.” *한국여성신학* vol. 1, no. 29 (March 1997): 67–72.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기독교사상* vol. 663 (March 2014): 198–209.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77–209.

______. ”[성서에서 맛보는 생명의 밥상 ②]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March 2013): 80–91.